

씨어터 그린북에 나타난 공연 창·제작의 실천 개념과 국내 현장성 고찰

어경준*

「차례」

1. 서론 - 공연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2. 본론 -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의 실행안
3. 결론 - 한계와 대안, 후속 논의

<국문초록>

기후 변화와 세계적 유행병의 영향으로 삶과 생태계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전 세계 문화 예술계도 환경 문제에 대해 급박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오랜 준비와 연구 끝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조직적으로 유럽과 북미를 연결하며 관객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문화 예술계는 문제의식에 비해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부족하다.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실행안의 부족으로 실천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영국 공연계에서 오랜 준비 끝에 개발한 씨어터 그린북(Theatre Green Book)의 실행 지침을 들춰보고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계를 알아보고 국내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공연, 공연제작, 기후행동, 기술경영, 탄소중립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 조교수

1. 서론 - 공연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1)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목적

2015년 UN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을 채택하였고, 17개 항목의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나라들이 시급히 이행해야 하는 현행 과제로 삼았다.¹⁾ 우리 행성 인류와 생명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가난, 기아, 교육, 평등,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개발도상국, 선진국 모두의 연대와 참여가 지구와 우리 존재의 지속가능성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 배경과 필요성

2019년 12월 COVID-19가 처음 알려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이후로 환경과 인간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활발해졌다.

마스터카드가 2021년 진행한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영향성 조사에 따르면 COVID-19 이후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전 세계적으로 58%에 달했고,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으며, 친환경 의식을 반영한 소비로 전환하겠다는 응답도 42%,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환경 의식에 있어 변화를 느낀다는 응답도 58%,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특히 브라질, 그리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개발도상국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면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

1) UN SDGs 홈페이지, <https://sdgs.un.org/goals>, 접속일 2023.2.21.

2) Mastercard 홈페이지, <https://www.mastercard.com/news/insights/2021/consumer-attitudes-environment>, 접속일 2023.2.21.

경영 측면에서도 포춘 선정 세계 500위 기업 중 250개의 회사와 52개국의 100위권 회사들을 상대로, 경영보고 항목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기업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80~96%에 달했다.³⁾ 경제의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매우 높아 자본의 흐름도 이를 따르며 변화와 개선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각성이 높다. 2007년 시작된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라는 비영리 단체는 예술과 문화가 환경과 생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소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위기가 곧 문화적 위기라 보고 예술과 문화의 힘을 이용해 환경 문제에 다양한 예술가와 대중을 선도한다. 환경 위기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 당사자의 불합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도 선도자를 자처하고 있다.⁴⁾ 현재는 국제적으로 공연, 복합문화예술, 음악, 미술, 도서관과 박물관, 무용, 문학 분야 등에서 2,000여 개의 단체들이 동참하는 큰 변화를 이루었다. 미국에서도 브로드웨이 환경 연합(Broadway Green Alliance)이 2008년에 결성되었고 2011년에는 줄리의 자전거와 연합하여 국제 환경 공연 연합(International Green Theatre Alliance)이 결성되었다. 브로드웨이 환경 연합은 브로드웨이 및 지방 공연환경단체들과 연합하여 공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육하고 전달한다.

국내에서는 국립극단 김광보 예술감독이 2020년 11월 취임하면서 극단의 운영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후 행동, 배리어프리 공연환경 조성 등을 천명하였고, 그 일환으로 환경공연 <기후비상사태>를 기획하고, 극단에 보관하던 소품과 의상 등의 공연 물품을 무료로 나누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내 공연 종사자나 단체가 동참할 만한 실행방안을 만들거나, 교육이나 타 단체와 연대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는 미치지 못하였다. 2020년 웹진 연극in이 58명의 연극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평소 일상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57%에 달하지만, 창작 환경에서 환경 문제를 잘 인

3) Statista 홈페이지,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32295/global-sustainability-reporting-growth-rate>, 접속일 2023.2.21.

4) Julie's Bicycle 홈페이지, <https://juliesbicycle.com/about-us/about-jb>, 접속일 2023.2.21.

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으며, 이와 관련해 경험한 구체적인 실천도 일회용품 줄이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등의 일상적인 것이었다.⁵⁾ 아직 국내에는 공연 제작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한 정보, 교육, 조직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공연 제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생태계와 환경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와 실행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차세대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실천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개선과 변화의 추이를 기록해 공유하면서, 관련 업계와 연대하고 확장해야 한다.

2. 본론 -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의 실행안

국내 공연 제작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실천이 부족한 이유는 관련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당면한 과제를 풀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질문이다.

영국 공연계에서는 지속가능성 설계 자문회사인 뷰로 하폴드(Buro Happold)가 주관하여 여러 공연 현장의 전문가들과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씨어터 그린북(Theatre Green Book, 이하 TGB)이라는 친환경 공연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연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작업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프리랜서, 공연장, 공연 제작자, 공연 제작사 모두에게 하나의 공유할 만한 작업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씨어터 그린북이 탄생한 것이다.⁶⁾

연극계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프로덕션 내에 지속가능한 작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린북을 개발하는 데에 참여하거나 그린북의 토대가 되었다. 그린북은 수십 명의 공연

5) 연극in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theater/WZ020300/webzine_view.do?wtIdx=12035, 접속일 2023.2.21.

6) Paddy Dillon et al., *Theatre Green Book*, UK: Buro Happold and Renew Theatre, 2021, p.15.

예술인과의 장기간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심층 모임), 컨설팅과 200명의 가까운 작업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준비되었다. 이 과정은 또한 친환경 공연 가이드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조사와 병행되었는데, Broadway Green Alliance, Creative Carbon Scotland, Culture Declares Emergency, Freelancers Make Theatre Work, ISAN, Julie's Bicycle, SiPA, White Light 외 많은 이들의 작업이 친환경 연극 제작 과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 포함되었다. 이들이 제안한 권고안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작성 당시 기준, 연극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용이성,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 관계자 및 그룹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린북은 이러한 정보를 한군데 모아 공연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간단한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한다.⁷⁾

1) 씨어터 그린북

씨어터 그린북은 총 3권으로 나뉜다. 공연 제작을 위한 매뉴얼이 1권이고, 2권은 건축물인 공연장의 관리를 위한 매뉴얼이고, 3권은 기관으로서 공연장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다. 특히 1권은 공연예술 교육기관에서 공연 제작 실습을 위한 매뉴얼까지 제시하고 있어 가장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권의 구성을 보면 TGB를 현장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히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분야와 인력, 상황이 모두 다름에도 가능한 모든 분야와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다 담으려는 노력을 보면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TGB의 각 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7) Ibid., p.35.

표 1. 씨어터 그린북 1권: 지속가능한 공연제작

요약	원칙	지침	실행도구
창의적인 도전 공연기획 공연제작 공연기술 지속가능한 공연제작	소개 주요원칙 창의적인 도전 공연 기획 무대장치 소품 의상, 가발, 분장 조명, 음향, 영상 장기적인 관점 다양한 공연 규모	지침 지속가능성을 위한 3단계 기초단계 중급단계 심화단계	실행도구 공연기획 디자인과 제작 공연기술 장소특성공연과 순회공연

표 2. 씨어터 그린북 2권: 지속가능한 공연장

요약	원칙	지침	실행도구
줄이기 치우기 바꾸기 생태다양성과 물 계획하기	소개 주요원칙 건물 종류 줄이기: 건축 구조 치우기: 배관, 배선 바꾸기: 친환경 개선 생태다양성과 물 정보 모으기 계획 수립 쉬운 것부터 유지 관리 모금사업 탄소중립과 그 이후	지침 온라인 참조	실행도구 온라인 참조

표 3. 씨어터 그린북 3권: 지속가능한 공연장 운영

요약	원칙	지침	실행도구
공연장 앞(FOH) 공연장 뒤(BOH) 공연장 유지관리 폐기물 이동과 운송 계약과 구매	소개 분위기 조성 주요원칙 공연장 앞(FOH) 공연장 뒤(BOH) 공연장 유지관리 폐기물 이동과 운송 하청과 협력	지침 기초, 중급, 심화	실행도구 온라인 참조

3권의 TGB는 모두 요약, 원칙, 지침, 실행도구로 구성된다. 현장 인력들이 간편하게 요점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요약본,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담은 원칙, 실천을 위한 목표를 현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 현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실행도구로 구성되었다. 공연 제작 현장에서 자신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 글에서는 공연 제작에 관한 TGB 1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공연장의 조직과 경영구조가 영국과는 다른 국내 실정을 고려하면 TGB 2, 3권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우리 실정과 거리가 있고, 공연 제작을 다른 1권이 당장 우리 실정에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씨어터 그린북 1권의 취지와 방향

TGB 1권은 공연 제작의 과정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그림 1>.⁸⁾ 각 과정별로 해당 분야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침과 실행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GB 프로젝트의 요약, 원칙, 지침, 실행도구로 나뉜 내용을 하나로 재분류해보도록 하겠다. TGB 원본의 내용이 각 항목에 따라 세부 내용의 차이를 두고 반복되고, 지침이나 실행도구에서 다루는 구체적 실행항목들은 국내 제작환경의 조직 구성, 제작 과정, 제작 일정, 분야별 작업 범위 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요점만 재분류하였다. TGB 설계의 취지와 방향만 잘 이해한다면 국내 실정에 맞는 실무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TGB 1권의 실행도구는 크게 계획과 설계, 소비, 재활용과 재사용, 운송과 이동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8) Ibid.,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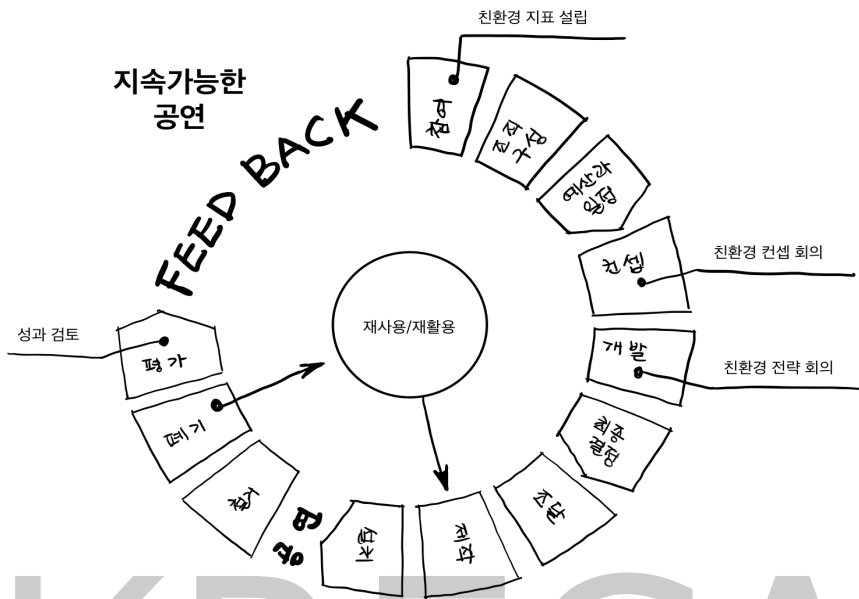


그림 1.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 사이클

(1) 계획과 설계

첫째로는 공연제작 시 탄소 소비의 필요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다. 공연 제작은, 특히 창작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는 것이 많은 유기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들을 줄이고 사전에 계획하는 사항들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일회성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 가능성을 늘리며, 불필요한 이동과 운송으로 인한 탄소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새로 쓴 작품이나 공동 창작의 경우가 특히 어렵다. 평소보다 더욱, 연습 과정은 새로운 발견과 변화의 여정이다. 그런 창작의 에너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사전 계획으로 인해 이런 기대치 않은 효과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출과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판 수정을 피하면서도 창의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균형감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깜짝쇼에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이지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가능한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물건에 의존하는

막판 수정 욕구를 의심해보자. 뭔가를 만들거나 새것을 사거나 이미 만든 것을 버리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자.)⁹⁾

둘째로 가상모형을 활용한다. 기존 디자인 과정에서는 도면, 스케치, 모형 등 많은 종이와 재료가 사용된다. 특히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많은 수정을 반복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물질이 소비된다. 가상모형이란 3D 캐드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사전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물질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가상모형을 위한 도구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현장 측량, 언리얼(Unreal)을 통한 사전 시각화, 솔리드웍스(Solidworks)의 기계 및 구조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상화 도구로 인해 현장 작업의 오류와 오차를 줄이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전 계획에 필수적인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영화제작 분야에서 가상화를 통한 사전 시각화의 진행이 어느 분야보다 빠르다. 프리비즈(Pre-vis), 테크비즈(Tech-vis), 피치비즈(Pitch-vis) 등 가상화 도구를 이용해 사전 시각화, 촬영 현장 관리, 투자 유치 등 단순한 특수 효과의 도구를 넘어 영상제작 전반의 사전 계획과 현장 통제를 모두 가상공간에서 검토할 수 있어, 예산 및 제작 일정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셋째로 모듈형 설계를 통해 분해조립이 가능한 재사용 장치를 활용한다. 특히 무대 장치는 특정 공연에 맞추어 디자인되다 보니 타 공연에 재활용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대 디자인의 장식과 구조를 분리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립이 가능한 모듈형으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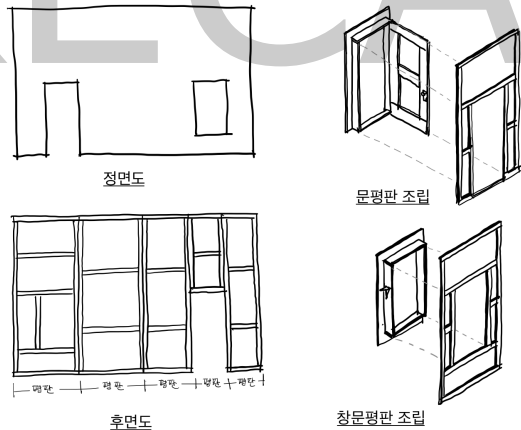


그림 2. 모듈형 평판과 창, 문의 조립

9) Ibid., p.15.

계하여 개별 디자인에 맞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장식과 마감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공연 후 구조는 남겨 재활용하고 장식과 마감은 필요에 따라 폐기한다. 이 개념은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시작하고, 한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제작하는 레퍼토리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회화기법의 발달로 모듈화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조립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무대 위에 구현할 수 있는 평판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현대에는 대형 장치 공연이나 순회공연들이 많아져 재활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모듈형 평판 시스템은 교육실습이나 저예산 지역 극단 등에서만 살아남았다.<그림 2>¹⁰⁾

(2) 소비 절감

첫째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주요한 실천의 하나는 탄소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물질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소비를 줄이는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한다. 즉흥적인 일회성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전에 분명한 목적과 필요를 검토한다.

둘째로는 원유를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을 배제하는 것이다. 페인트나 코팅제는 자연환경에 영향이 적은 수성 재료를 우선하고, 스티로폼이나 PVC 등의 플라스틱을 다른 재료 혹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¹¹⁾

(3) 재활용과 재사용

첫째로 재료, 장치, 물품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장치를 재활용하거나 구성된 재료를 분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둘째로 재료, 장치, 물품을 재활용하려면 물품과 관련 정보의 보관이 필요하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창고와 수납시설이 필요하며, 보관을 위한 분류 체계도 필요하다. 보관 중인 물품을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기록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할 때마다 창고를 방문한다면 도리어 이동에 드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10) Michael Gillette, 어경준 옮김, 『공연 디자인 실무』, 서울: 비즈앤비즈, 2014, 254-255쪽.

11) TGB 홈페이지, <https://theatregreenbook.com>, 접속일 2023.2.22.

셋째로 보관 중인 물품과 정보를 타 기관이나 조직과 연계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관된 물품이 아무리 많아도 공연마다 특성에 맞는 필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계와 공유의 커뮤니티가 클수록 재활용 비율도 커질 것이다.

(4) 이동과 운송 절감

이동과 운송에는 여전히 많은 석유 에너지가 소비된다. 석유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구매, 대여, 고용을 실천하기 위해 인근 지역경제를 활용한다.

둘째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한다. 기차나 선박 그리고 전기차나 자전거 등 에너지 소비가 적은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로 이동 및 운송을 사전에 계획하고 관리하여 즉흥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가능한 다발성 이동을 줄이고 운송 계획을 묶어서 진행한다.

(5) 목표와 평가

탄소중립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소비를 줄이려면 재료에 따른 소비량을 측정해야 한다.

첫째로 재고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고 특정 공연에 사용된 재료와 사용 후 반납한 재료를 기록하여 재료 소비를 추적한다. 합판이나 목재는 수량으로, 천이나 페인트는 면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료의 소비 경로와 소비량을 추적한다.

두 번째로 탄소 소비와 에너지 소비를 측정한다. TGB에서 제공하는 탄소/에너지 측정 도구¹²⁾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작품에서 소비한 탄소와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사용 재료와 에너지 종류를 선택하면 소비한 탄소의 양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12) 탄소소비 측정도구 홈페이지,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carbon-management/tools-and-resources>, 접속일 2023.2.22.

이렇게 탄소와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분기마다 혹은 해마다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며, 탄소와 에너지 절감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과 학계에 공유하면 지역별로 혹은 전국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실천 진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 한계와 대안, 후속 논의

1) 한계와 제약

기후 변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인식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일에서 당장 변화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해온 서구와 달리 국내 공연계에서는 관련 연구도 선도적인 조직도 없는 상태다. 국내 공연계에서 예상되는 한계와 제약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창작의 고유성

우선, 창작은 그 고유성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 사고이다. 남과 다른 재료와 표현은 모든 연출과 디자이너가 욕망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은 그런 고유성에 부가되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예술가의 생명이 유지된다. 공유와 나눔을 통해 고유성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소유권이 모호한 작품의 유통과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2) 관련 산업의 위축

무대, 소품, 의상, 조명 등 공연 관련 재료, 장비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탄소 소비 절감을 통해 물질과 재료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관련 분야의 성장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공연산업 주변으로 다양한 공연 인접 산업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의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콘텐츠 사업

또한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제작비 상승

패러다임이 재료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일정과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그림 3>¹³⁾.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해 보관한 물품이나 재료를 찾아보고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에 넣어 검토하는 등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전체 일정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물질을 소비하기보다 사람의 시간을 더 소비하게 된다. 그로 인한 근로 시간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무대 위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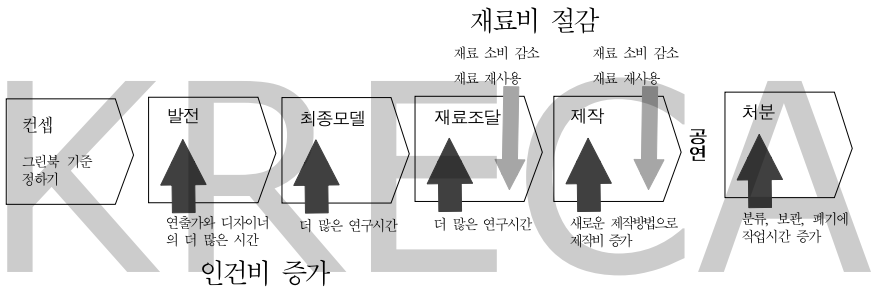


그림 3. 지속가능한 공연제작 일정

(4) 공연제작 시장의 양극화

규모가 작은 공연들은 친환경 전략과 실천을 위한 관련 인력, 전문성, 시설과 장비 등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작이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한 공연의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작은 사업장과 큰 사업장의 성장과 투자 규모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그림 4>¹⁴⁾. 큰 시장과 작은 시장의 간격이 벌어져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이

13) Paddy Dillon et al., Op. cit., p.18.

14)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홈페이지, <https://hbr.org/2019/08/the-gap-between-large-and-small-companies-is-growing-why>, 접속일 2023.3.5.



그림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격차(\$ billions)

위태로울 수 있다.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장이 나머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안전, 친환경, 인권과 같은 사회 가치와 정의를 강조할 수록 역설적으로 이 분야에 새로운 투자 여력이 적은 영세업자들의 타격이 커진다.

실천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과 조직력 그리고 자금도 형성되어야 한다. 기후 행동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행까지 연결하기가 어렵다 보니 죄책감만 쌓이면서 무력감이 느껴지고 장기화되면 포기하게 된다.

2) 대안

위에서 열거한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연계가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객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먼저 소개한 마스터카드 소비자 조사에 더해, 영국 58개의 예술단체에서 약 12,000명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예술단체들이 기후 행동에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¹⁵⁾ 행동 전환의 어려움보다 관객의 외면이 더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제 변화의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위에서 나열한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후속 논의들에 대해 알아보자.

15) Katy Raines & Flo Carr, *Understanding audience attitudes towards the role of cultural organisations in tackling the climate emergency*, UK: Indigo Ltd, 2022.

(1) 공연시장의 다변화

창작 위축으로 인한 저작권 시장 위축, 주변 산업의 위축, 공연시장의 양극화 등 시장성 하락 문제는 공연시장을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 공연시장은 하나같이 완성품 시장이다. 즉, 모두 티켓 판매 수익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이 역시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획일화된 시장을 다양한 타겟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분화해 콘텐츠 소비 시장을 단계화하는 것이다. 미국 공연시장의 경우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오프 브로드웨이, 그 밖에 지역 극단들로 나뉜다. 오프와 오프오프가 브로드웨이의 상업성과 자본 중심의 제작방식에 반기를 들고 출현했지만¹⁶⁾,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계하여 생존한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대개의 지역 극단들은 후원금이나 지원과 티켓 수익이 평균 50대 50의 비율로 운영비를 충당해왔지만 이마저도 점점 생존이 어려워졌다. 이제 새로운 작품을 브로드웨이와 공동 개발하거나 독자 개발하여 브로드웨이에 저작권을 판매하는 식으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며 변화하고 있다.¹⁷⁾ 즉, 신작 개발 시장과 유통 시장, BtoB와 BtoC 시장으로 나뉘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관객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콘텐츠 개발 및 생산 시장과 콘텐츠 유통을 나누는 시장의 다변화 논의가 필요하다.

(2) 분야별 관리자 육성

TGB의 매뉴얼에 따르면 분야별로 매우 세밀한 실행안들이 있다. 하지만 국내 공연시장은 공연 제작 실무는 대개 하청 용역으로 이루어진다. 국공립 단체의 공연 제작이든 민간 공연단체의 제작이든 직접 제작방식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토크 방식의 용역계약이나 입찰 방식으로 무대, 소품, 의상, 조명, 음향, 영상 등에 대해 제작 용역이나 입찰 용역으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TGB 매뉴얼에서 묘사한 것처럼 제작사가 세밀하게 작업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영국의 국립극장 NT는 2021년 5월부터 TGB를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NT의 경우 200명이 넘는 분

16) 김미혜, 『브로드웨이를 넘어』, 서울: 연극과 인간, 2018, 47쪽.

17) 같은 책, 512-513쪽.

야별 공연 기술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 실험, 제작, 설치, 운영을 모두 극장 내부 인력으로 진행한다.¹⁸⁾ 그러므로 공연장의 운영 취지와 방향에 따라 재료의 선택, 구입, 보관, 이동, 제작, 설치, 해체, 폐기까지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역할은 제작감독과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소품 등의 분야별 관리자들이 담당한다. 분야별 관리자들이 예산과 일정 그리고 인력의 활용계획 등 제작단계별 수행 목표와 과정을 통제하고, 제작감독과 소통하며 전체적인 공연 제작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일관성 있는 실천이 가능하다.

중소형 민간 공연 제작 단계에서 이렇게 직접 고용을 통한 전문인 육성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공립 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전략과 방향을 재검토하여 공연 제작 생태계와 전문인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

(3) 미래 지향성

위와 같이 현재는 여러 한계와 제약이 분명하지만, TGB 프로젝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린북은 작성하던 당시의 지속가능한 연극 제작 모범 사례에 대한 해석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에 대한 해석이 발전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빛을 발하고, 저탄소 재료와 재사용 재료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더 넓은 정치 및 인프라 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모범 사례’는 계속 진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권고된 기준과 목표는 다른 원칙이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¹⁹⁾

지속가능한 공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의 어려움보다 미래에 만들어갈 목표와 그 이유에 공감

18) 2015-2016 NT Annual report 홈페이지, <http://review.nationaltheatre.org.uk/#2016/how-we-made-it/34>, 접속일 2023.5.21.

19) Paddy Dillon et al., Op. cit., p.35.

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무거운 발걸음을 견디려는 태도이다.

3) 후속 논의

씨어터 그린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실행도구들은 공연제작의 물리적 요소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 공연 제작과 공연기술 관련 분야는 타 이론 분야에 비해 학문적 성과가 적다. 여기에 소개한 지속가능한 공연제작 개념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국내 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구체적 실행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현황 조사 연구, 실행안 연구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해외에서 선행된 지속가능한 공연제작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고 국내의 현상적 한계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사례 연구나 현황 조사, 실행안 도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연제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연제작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연제작 환경의 여러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제작환경에서 분야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이라는 대의적 목적을 실행하려면 현실적 입장을 수용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후속 논의에 필요한 관점들을 제시해보겠다.

(1) 수용과 공유

기후 행동은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법을 수용해야 한다.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성취를 타인에게 나누는 수용과 공유의 자세가 필요하다. 수용과 공유를 통해 다양성이 증진된다. 사고와 가치의 다양성, 직업 분야별 접근 방법의 다양성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에 다양한 관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분야별로 자기 목소리를 가진 전문가가 육성된다. 디자인으로부터 제작, 설치, 이동, 폐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수평적 체계적 소통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 소통이 자유로워진다. 국내 공연계는 지난 몇 년간 권위와 위계에 의한 폭력의 문화를 폭로해왔고, 이에 따라 공연 제작의 의사결정 과정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사전 계획이 없던 아이디어를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즉흥적인 물질의 소비가 많았다.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약속을 만들면 정보와 소통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작업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3) 예술의 새로운 정의

예술의 근원적 가치와 목적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술을 만들고 나누는 것일까? 누가 우리의 예술을 공감해줄 것인가? 결국 공감하고 지지해줄 바탕이 없는 곳에 예술이 설 자리가 있을까? 다양한 설문에서 관객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요구,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를 가진 소비자와 관객의 정체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화 예술계에도 생존을 위해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이다.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치를 내재한 예술, 실천하는 예술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고 크다.

이야기꾼으로서, 우리는 무대 안팎에서 관객들과 여러 주요 화두를 탐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지구 온난화 시대에, 이 능력이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작품을 통해 서건, 실천을 통해서건.²⁰⁾

(4) 예술교육의 변화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아직 국내 공연

20) Ibid., p.13.

제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의지가 매우 낮다. 청년 예술가, 차세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교육하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제는 공연 제작 현장에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연은 안쓰고, 다시 쓰는 것만으로 실천할 수 없다. 교육과 현장, 제작과 유통, 창작과 기술이라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빈약하지만 본 글의 개념 정리와 소개가 후속 연구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KRECA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미혜. 『브로드웨이를 넘어』. 서울: 연극과 인간, 2018.

Gillette, J. Michael. 어경준 옮김. 『공연 디자인 실무』. 서울: 비즈앤비즈, 2014.

Dillon, Paddy et al. *Theatre Green Book 01*. UK: Buro Happold and Renew Theatre, 2021.

Raines, Katy & Carr, Flo. *Understanding audience attitudes towards the role of cultural organisations in tackling the climate emergency*. UK: Indigo Ltd, 2022.

2. 인터넷 웹사이트

연극in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theater/WZ020300/webzine_view.do?wtIdx=12035.
접속일 2023.2.21.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홈페이지. <https://hbr.org/2019/08/the-gap-between-large-and-small-companies-is-growing-why>. 접속일 2023.3.5.

Julie's Bicycle 홈페이지. <https://juliesbicycle.com/about-us/about-jb>. 접속일 2023.2.21.

Mastercard 홈페이지. <https://www.mastercard.com/news/insights/2021/consumer-attitudes-environment>. 접속일 2023.2.21.

NT Annual report 홈페이지. <http://review.nationaltheatre.org.uk/#2016/how-we-made-it/34>. 접속일 2023.2.28.

Statista 홈페이지.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32295/global-sustainability-reporting-growth-rate>. 접속일 2023.2.21.

Theatre Green Book 홈페이지. <https://theatregreenbook.com>. 접속일 2023.2.23.

UN SDGs 홈페이지. <https://sdgs.un.org/goals>. 접속일 2023.2.21.

Sustainable Theatre, the Theatre Green Book, and Korean Theatre

Eo Kyoungjun*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mankind's interest in life and ecosystems is deeper than ever.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around the world also feel an urgent sense of crisi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and have begun to explore practical responses. Deep research and preparation has equipped European and North American arts and culture system to meet the needs of their audience. However, specific actions or movement for change in Korean arts and culture don't yet meet the growing awareness of its audience. A lack of related research, professional resources, and implementation plans have impeded any practical applications. Using the practical guidelines of the Theater Green Book, developed over many years by a theatrical society in the UK,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existing limitations to find applicable solutions and future improvement.

key words

Sustainable theater, Theatrical production, Global warming, Technical management, Carbon zero

접수일 : 2023년 3월 22일

심사기간 : 2023년 4월 14일~2023년 5월 26일

게재결정 : 2023년 5월 26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tage Design, School of Dram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RECA